

“데이트·쇼핑 한번에… 소풍온 듯 백운호수 석양 감상해요”

르포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타임빌라스'

잔디광장에는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연인들과 가족들이 산책을, 그 주변으로 설치된 야외 분수와 놀이시설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유럽의 유리 온실을 떠올리게 하는 '글라스빌'은 기존 아울렛 매장에서는 느끼지 못한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10일 그랜드 오픈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 이야기다. 바라산과 백운호수와 인접한 타임빌라스는 말그대로 '자연'을 품은 아울렛이다.

타임빌라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웰컴 광장인 '더스테이션'에 들어서게 된다. 30m 높이의 유리돔 천장은 자연 채광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설계됐다. '백화점에는 창문과 시계가 없다'는 기존 틀을 완전히 깨부순 것이다. 유리돔 천장에 시선을 빼앗긴 것도 잠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다보면 실내 조경에 눈길이 간다. 휴식공간을 넓게 설계한 것도 특징이다.

더스테이션 1층과 지하1층 사이 GF층 양쪽에는 '스타벅스'와 '나이키' 매장이 들어섰다. 그리고 '프리스비' '삼성 디지털프라자' '휘게문고' 등을 입점시켜 MZ 세대의 발길을 이끈다.

타임빌라스를 방문한 A(34)씨는 "서울 송파에서 25분 정도 걸렸다. 주말에 데이트와 쇼핑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



화창한 날씨를 보인 12일 오후 경기 의왕시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 위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다.

/뉴스시

산·호수 인접 '자연 품은 아울렛' 웰컴광장 '더스테이션' 30m 유리돔 1층 야외 시그니처공간 '글라스빌' 10개 글라스하우스 체험요소 강화 자작나무 550그루 심은 산책로도 다이닝존, 옥상서 백운호수 감상

게 됐다"며 "넓게 펼쳐진 잔디광장과 기존에 볼 수 없던 '글라스빌'에 감탄했다"고 말했다.

1층으로 올라와 야외로 나오면 타임빌라스의 시그니처 공간인 '글라스빌'을 만날 수 있다.

스타트업 '글로벌서울'과 협업해 약 9300㎡ 규모의 야외 녹지 공간에 세워진 총 10개의 '글라스 하우스'는 바라산을 배경으로 독특한 풍광을 선보인다. 각 독립된 '글라스 하우스'에는 체험 요소를

강화한 트렌디한 브랜드가 입점했다.

전통카체험서비스가 특징인 전통카 쇼룸&레스토랑 복합매장 '디트로네 라운지', 체험형 아웃도어 캠핑관 '스노우파크', 스케이트 체험존과 보드샵이 결합된 '세이버', 프리미엄 골프 스토어 'PXG', 체험형 가구 매장 '시몬스'가 입점했다.

아이와 함께 방문한 B씨(32)는 "오픈 전인 8일(가오픈)부터 맘카페에서 '타임빌라스'가 화제였다"며 "야외에서는 '디트로네 라운지'의 전통카 체험을, 실내에서는 '동심서당'에서 시간을 보내라고 하더라"고 추천코스를 말했다. 이어 "피크닉을 온 것 같은 기분"이라고 덧붙였다.

반려견을 위한 용품부터 유치원, 스파 등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큐레이션 스토어 '코코스퀘어'도 입점해 반려인들의 관심을 모은다.

'포뮬커피' '아티장베이커스' '라라플로아' 'THE BATT(더밭)' 등 SNS상에서 인기있는 F&B 스토어도 글라스빌에 입점했다. 특히 더밭은 유명 청년농부와 협업한 '상생' 매장으로 청년농부가 신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춘천 감자빵과 강원 옥수수빵 등 다양한 메뉴들을 맛 볼 수 있다.

글라스빌 주변으로는 자작나무 산책로가 있다. 인제에서 직접 공수한 자작나무 550그루가 심어져 있어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2층에는 백운호수의 석양을 바라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다이닝 존'이, 옥상에는 백운호수와 바라산을 감상하며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루프탑 피크닉 광장'이 조성됐다. 타임빌라스는 기존 교외형 아울렛보다 F&B 매장 구성비를 10% 가량 늘렸다. 2층 다이닝 존에

서는 한식당부터 인도, 이탈리아 레스토랑까지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만나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인 레스토랑' 아그라 '프리미엄 중식당 '차이797' 조선시대 궁중음식 전문점 '한국의 집 효종갱'이 있다.

롯데쇼핑 측은 기존의 아울렛과는 차별화한 타임빌라스를 앞세워 경기 남부 지역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롯데온에서는 타임빌라스 오픈을 기념해 14일까지 '아울렛의-왕, 타임빌라스'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타임빌라스'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고 싶은 일을 댓글로 남기면 이벤트에 자동 참여되며,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고객 100명을 선정해 엘포인트(L.P OINT) 5000점과 '타임빌라스'에 입점한 '더밭'의 대표 메뉴인 '춘천 감자빵 이용권'을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 더 스테이션 유리돔.

/롯데쇼핑

국내·해외 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금융위, 제도개선 방안 마련

앞으로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허용된다.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해외주식에 대해서만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허용한 바 있다. 현재 신한금융투자과 한국투자증권 2개의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매우는 방식으로 온주로 만들어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해외주식과 함께 국내주식

의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주식의 경우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증권사별로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국내주식은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플라이빗·코어닥스 등 원화마켓 종료 잇따라

>> 1면 '신고 마감 2주...'서 계속

줄폐업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거래소 플라이빗은 오는 17일부터 원화마켓 서비스 종료를 안내했다. 플라이빗은 "코인 간 거래 가상자산사업자로 우선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한다"며 "원화마켓 거래 서비스를 중단하고 추후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을 통해 보안 및 변경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코어닥스도 오는 15일부터 원화마켓 종단을 공지했다. 또 최근 ISMS 인증 획득에 성공한 빙트론 역시 17일부터 원화마켓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보를 포기하지 않은 거래소도 있다. 고팍스, 한빛코 등은 일부 시중은행과의 마감기한 막판까지 시중은행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석 기자 ysl@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 절실”

대한상의, 배출권 가격 급등락에 기업 투자계획 등 의사결정 혼란 해외모델 참고 안정화방안 제안

최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논의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이후 배출권 가격 급등락으로 기업의 투자계획 및 배출권 매매 의사결정에 혼란을 겪어 왔다"며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인 해외사례를 참고해 근본적인 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이를 팔거나 살 수 있다.

문제는 배출권 가격변동이다. 배출권 가격은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 2020년 초 4만2500원까지 상승하는 등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가격 급등락 대책으로 예비분 추가공급, 기업이 가진 잉여분의 이월 제한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했지만 가격안정

효과는 미흡했다.

이지용 부경대학교 교수는 "배출권 거래제의 목적은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데 있다"며 "배출권 가격이 예측 불가능하게 급등락하면 기업이 경제적 손익을 따져 추가적 감축투자를 할지, 배출권을 팔거나 살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상의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EU·미국 등 주요국은 배출권 가격 또는 물량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U는 2019년부터 시장에 공급되는 배출권 물량을 일정 범위에서 조절한다.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량을 1년 할당량의 22~45% 수준인 4억톤~8.33억톤 범위에서 유지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정부가 판매하는 배출권의 가격 범위를 사전에 제시한다. 하한가격은 2013년 10달러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상승률, 이자율 등을 고려해 5%씩 인상하고, 상한가격은 3단계로 40, 45, 50달러에 설정해 매년 5%씩 인상한다.

시장가격이 단계별 상한가격보다 높아질 경우 해당 단계의 상한가격으로 살 수 있다. 이를 통해 하한 가격은 시장 가격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상한가격은 기업의 '심리적 안전장치' 역할을 하면서 가격안정에 기여한다고 상의는 설명

했다.

이 외에도 뉴질랜드는 시장 거래 가격과 별도로 정부가 판매하는 배출권의 상한가격을 사전에 제시한다. 기업이 시장에서 구매할지, 정부 판매분을 살지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해외 모델을 참고해 세가지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을 제안했다. EU와 같이 시장에 배출권 공급물량 여유분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식 도입, 뉴질랜드와 같은 상한가격 옵션 제공, 전기(前期) 계획기간의 잔여예비분을 차기(次期) 계획기간으로 이월해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보고서는 "상·하한 가격을 정하는 미국 방식이 간명하지만 가격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며 "배출권 공급물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EU 방식의 도입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연간 할당량의 2% 수준에 불과한 국내 배출권 시장의 여유 공급물량을 EU사례를 참고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 방식을 참고해 사전에 정한 상한가격으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의 도입도 필요하다. 배출권거래제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일일이 배출권을 사고파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배출권 정산시점에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성운 기자 ysw@